

금수강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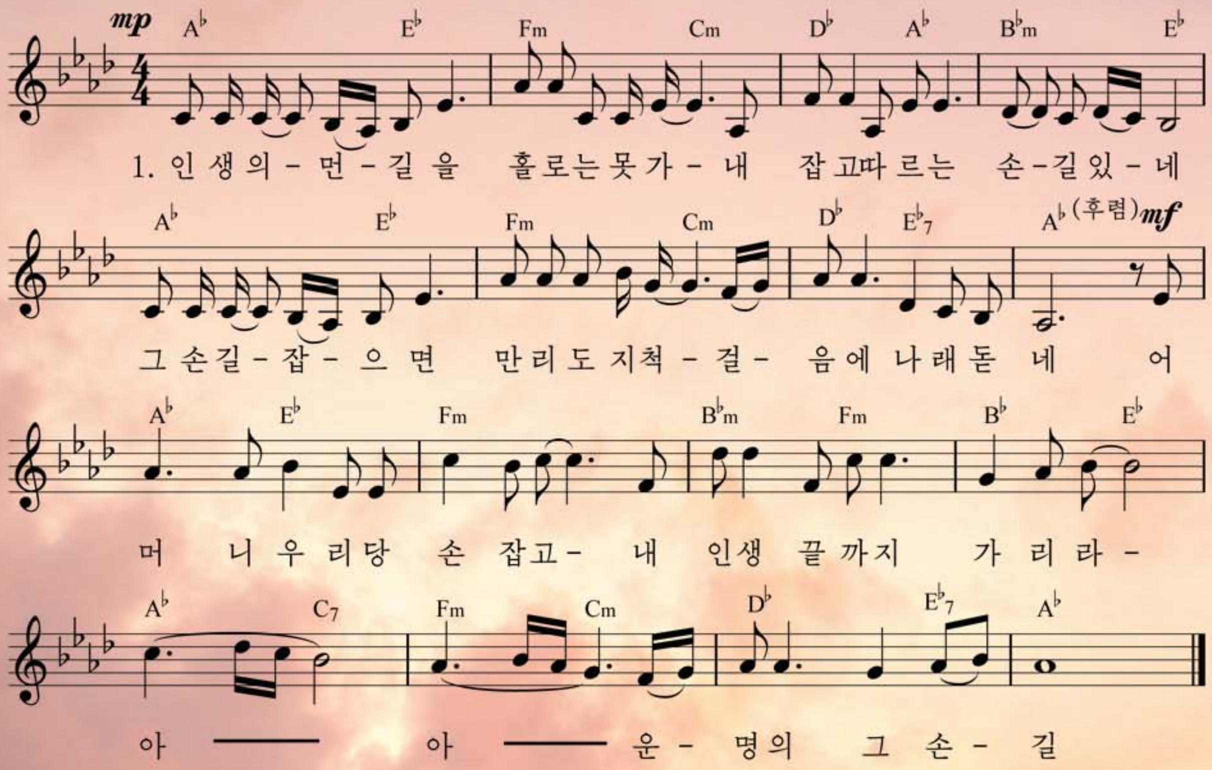
주체105(2016)
루계 제318호 월간

 ISSN 1727—9062

운명의 손길

정서적으로 (♩=72)

작사 황성하
작곡 신일재



2. 내 걸음 헛될가 이끌어주고
한시도 곁에서 떠난적 없네
그 손길 놓치면 갈길을 잃은
풍랑의 쪽배되리
(후렴)

3. 운명의 숨줄로 그 손길 잡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가네
그대를 따라서 내 가는 길에
해빛은 눈부시리
(후렴)

차 례









새집들이한 제대군인신혼부부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월

인민은 장군님의 하늘

2월이다.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이 시각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본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력사이다.

그이께서는 이민위천을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기초로 삼도록 하시고 인민들의 진정한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신 그이께서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가시였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다.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서는 평범한 로동자, 농민들의 손도 잡아주시고 새집들이를 하는 가정들을 찾으시여서는 구들이 더운가, 살림형편은 어떠한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며 집주인들의 귀속말까지도 다 들어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헤아리시여 그것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담도록 하신 그이이시였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대로 당의 사상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된다는 그이의 명언에 인민을 중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여있다.

장군님께서 인민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쓰신 교시나 물음은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였다.

인민의 리익을 위한 일에서 타산을 앞세우지 말고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정치이다.

언제인가 방대한 산업시설건설로 많은 로력과 자재, 자금을 필요로 하고있던 때였다. 당시의 여의치 못한 사정을 알게 되신 장군님께서는 물론 공장을 짓자면 타산을 해봐야 한다, 나는 타산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판알로 계산만 하면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들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국고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는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하시였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 모든것이 긴장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산업시설뿐아니라 수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평양대극장이며 모란봉극장, 국립연극극장이며 대동문영화관,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등이 명실공히 인민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로 더욱 훌륭히 개건되였다. 묘향산과 칠보산, 정방산과 구월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이 더 잘 꾸려지고 나라의 곳곳마다에 휴양소며 료양소, 정양소들이 일떠서거나 개건되여 인민들의 건강과 문화휴식을 충분히 보장해주고있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그뿐이 아니다. 조국이 최악의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무상치료제, 무료교육제 등 국가의 시책들은 변함없이 실시되였으며 나라가 살림집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그이의 사랑은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에도,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도, 인민들이 사는 조국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에 장군님의 헌신의 자취가 어려있는것을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어디 가나 그이의 높은 뜻과 사랑이 어려있는 거룩한 땅이니 이 성스러운 지역을 차를 타고 지나가기가 송구스럽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뜨린적이 있다.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하는것처럼 당일군들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어느해의 첫날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당일군들은 마땅히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도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을 만나시면 그리도 기뻐하시고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 인민을 존중할줄 모르는 일군의 사업작풍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모르신분이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

근 50년을 헤아리는 장군님의 당령도사의 갈피에 새겨진 명언들은 그이의 인민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을 인민의 운명의 보호자로 건설하신 그이의 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을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그이께서는 숨죽은 공장들과 어려운 생활난을 겪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전선으로 가시였다. 그 조국수호의 길은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하신 그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길이였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당의 위업은 굳건히 담보되게 되였으며 인민들은 영원히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서의 값높은 삶을 누려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한 강성국가건설이라는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힘차게 내밀고있는것도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강력한 군력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절감한 조국인민은 그이를 끝없이 그리워하고있으며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자기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

일 화

거듭 물으신것은

주체100(2011)년 12월 4일, 이날은 일요일이였다.

한해도 다 저물어가는 12월의 첫 일요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문화휴식을 위해 마련된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였다.

일군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나서 유희시설들이 설치되여있는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지금까지 사고난적은 없는가고 정을 담아 물으시며 유희시설들을 가동시켜 여기에 온 일군들이 모두 직접 타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유희장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수행일군들에게 타보라고 하실줄은 생각도 못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일군들은 순간에 깨달았다.

그이께서 오늘 단순히 유희장에 차려놓은 설비들을 보러오신것이 아니라 유희시설의 가동상태를 알아보시고 실지 인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일군들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려는것을 알아차렸던것이다.

일군들이 회전그네에 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좌우방향으로 번갈아 오르내리는 회전그네의 좌석바구니에 시선을 두신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이곳 일군에게 인민들이 많이 오는가고,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다정히 물으시였다.

인민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한번 오면 가고싶지 않아한다는 일군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기쁘신 안색으로 어느 유희기구가 제일 인기있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일군이 《회전그네, 관성비행차…》라고 손으로 꼽으면서 알려드리자 그이께서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유희시설들가운데서 축이 120° 까지 올라갈수 있게 된 회전그네가 제일 인기있을것 같다고, 회전그네다음으로 관성비행차가 인기있다고 하는데 자신께서 보기에는 관성비행차보다 급강하탑이 더 인기있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회전그네를 타고나면 기분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회전그네를 타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혼이 나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후에 와서는 또다시 타겠다고 한다는데 회전그네를 타기가 간단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하시며 웃으시였다.

유희시설을 탔던 일군들이 내려오자 바람으로 이구동성으로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것 같다고 말씀올렸다.

일군들의 희열에 넘친 모습에서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시는듯 그이의 안광에는 밝은 미소가 떠날줄 몰랐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거듭 강조하지만 유희장관리운영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를 미리 막는것이라고, 일군들과 기대공들이 유희오락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규정대로 하고 설비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이르시였다.

진정 인민을 모든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놓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다.

고있다. 그리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해나가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신 장군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에 의해 오늘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자기의 행로에 빛나는 력사와 자랑찬 업적을 수놓아올수 있었다.

전 로씨야련방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나는 **김정일**위원장의 모든 활동은 단 한가지 목표, 인민들에게 안녕과 번영을 안겨주는데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서술하였다.

정녕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하시며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고 빛내여주신 그이의 업적은 인민의 심장속에 길이 빛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변진혁

수 기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광명성절과 위대한 장군님께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날을 맞게 됩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과 뜻깊은 날을 맞느라니 한평생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 가슴에 차넘칩니다.

제가 지배인으로 일하고있는 보통문거리고기상점에도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신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이 잇닿아있습니다. 찾아오시여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인민들이 좋아하겠소라고 하시며 상점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던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모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상점을 찾아주신것은 주체100(2011)년 9월 8일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인 그이의 피로를 잠시라도 풀어드리려고 위대한 장군님을 철갑상어며 룡정어, 뱀장어와 자라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꼬리치며 놀고있는 산물고기매대에 먼저 모시였습니다.

그런데 매대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 꼬리치며 놀고있는 물고기들이 아니라 수조들마다에 붙어있는 물고기가격표부터 먼저 보시는것이였습니다. 자리를 옮겨가며 가격표를 하나하나 보시며 안색을 흐리시던 그이께서는 저에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값이 비싸면 어떻게 인민들이 마음놓고 사먹을수 있겠는가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귀한 물고기들의 식용가치와 약용가치 그리고 그것을 기르는데 든 품이 있어서 그에 맞게 가격을 정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이 상점은 우리가 인민들에게 선물로 주는 상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겠는가고, 가격을 좀더 낮추라고 간곡하게 이르시며 상점을 일일이 돌아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상품의 가격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그 무게와 모양새, 포장상태를 가늠해보시였습니다. 고기가공제품을 보시고서는 이런 고기가공품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으시였으며 잠간 들려서 불고기맛을 보게 의자가 없이 설계되여 꾸려진 3층 불고기식당에 가시여서는 늙은이들과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꼭 의자를 놓아주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앉은 자리에서 여러가지 음식을 다 맛보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떠나실 때에는 앞으로 이런 상점들을 곳곳에 지어주어 인민들 누구나가 그 덕을 보게 하자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정녕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인민들이 좋아하겠소라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하시는 교시에 접하며 저는 그날 무엇이든 인민이 좋다고 해야 인정할수 있다는 그이의 평가기준과 원칙을 다시금 뜨겁게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하기에 남조선의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은 인민들의 복리증진과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에 의하여 마련된 또 하나의 훌륭한 상업봉사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평범한 평양주민들이 철갑상어까지 산채로 사다먹을수 있다는 북의 보도를 가볍게만 볼수 없다.》

오늘도 저희들은 상점건물도 장군님께서 오시였던 그날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하고 상품의 가지수와 식당의 료리수도 훨씬 늘이여 장군님의 인민중시, 인민사랑이 인민들에게 더 잘, 더 많이 가닿게 하려고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보통문거리고기상점 지배인 림은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손정도목사

(전호에서 계속)

《명금이 이토록 좋으시니 필시 만년장수하시겠습니다. 대통령금까지 이렇게 뚜렷하니 나라의 수령으로 높은 존경을 받으시는것이올시다.》

손원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의 손금을 보아주는 사람도 난생처음 보았고 사람의 손금가운데 대통령금이 있다는 말도 처음으로 들었다. 손원태가 나의 손금을 보아주면서 명금이 길다고 한것은 나의 장수를 축수하는 심정의 표현일것이며 그가 대통령금이 뚜렷하다고 한것은 우리의 사업에 대한 지지의 표시일것이다.

손원태는 한 나라의 수반과 회견한다는 공식적인 관념은 조금도 없이 나에게 이런 청까지 하였다.

《주석님, 언제 나에게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길림에 있을 때 주석님과 함께 들던 〈빙땅훌루〉도 먹고싶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친형제간이 아니고서는 꺼내기 어려운 요구를 그가 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정말로 나를 친형처럼 대하고있는것이였다. 손원태에게 형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불쑥 내 머리에 떠올랐다. 손원태의 형 손원일은 한때 남조선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하다가 몇해전에 고인이 되였다.

내가 아무리 지성을 기울여 손원태를 대접한다고 하여도 손원일이 자기 동생을 보살펴 준 그 사랑의 높이에까지는 도달할수 없을것이였다.

그러나 《쨩즈궈즈》나 《빙땅훌루》가 먹고싶다는 그의 소원이야 왜 풀어주지 못하겠는가. 《쨩즈궈즈》란 콩국과 기름에 튀긴 꽈배기 비슷한 중국음식이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손원태와 손인실을 데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그들에게 《쨩즈궈즈》를 몇번 사준적이 있었다.

내가 《쨩즈궈즈》를 사줄 때마다 어린 두 남매는 그것을 여간 맛있게 먹지 않았다. 손정도선생한테 진 신세를 생각하면 사실 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먹이고싶은것이 당시의 나의 심정이였다.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돈은 학비도 변변히 댈수 없는 보잘것 없는것이였다.

나는 손원태가 《쨩즈궈즈》를 정말로 먹고싶어 그런 청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쨩즈궈즈》라는 한마디의 말로 우리들이 친형제나 친남매간처럼 가깝게 지내던 길림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을뿐이다.

《〈쨩즈궈즈〉가 먹고싶다면 다음번에 해주겠소.》

손원태는 롱삼아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그에게 정말로 《쨩즈궈즈》를 해먹이고싶은 생각이 났다.

다음번이 아니라 당장에 만들어주고싶은 욕망을 느끼였다. 그가 나에게 언제 《쨩즈궈즈》를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허물없는 말을 한데서 나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이틀후 우리 료리사들이 만든 《쨩즈궈즈》가 손원태부부에게 전달되였다. 조반전에 그 음식을 받은 손원태는 김주석님 덕분에 어린시절에 즐겨먹던 《쨩즈궈즈》를 먹게 되였다고 하면서 눈물을 삼키였다고 한다.

인정은 시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시간의 힘앞에서는 모든것이 퇴색하고 조락해버리지만 인정 하나만은 매장시켜버리지 못한다. 진실하게 맺어진 우정이나 사랑에는 로쇠라는것도 있을수 없고 변질이라는것도 있을수 없다.

행로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두절되였던 우리의 우정은 6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뛰여넘어 이렇게 다시 이어졌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만나 길림시절에 부르던 《사향가》도 합창하였다. 놀라운 일은 나도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그도 가사를 고스란히 기억하고있는것이였다.

손원태는 민족을 위해서 별로 해놓은 일이 없기때문에 나를 볼 면목이 없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겸손한 말이였다. 그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학생회 감찰부장으로 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고 일화배척운동에도 뛰여든 애국청년이였다.

이것은 후날 그를 나가사끼감옥으로 끌어가게 한 근거로 되였다.

한평생 정치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의 모습에는 길림시절의 그 깨끗하고 순진한 품격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아니면 너라는 생존경쟁의 풍토속에서 사람이 량심인으로서의 체모를 잃지 않고 청렴결백하게 살아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손원태는 우리가 해놓은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우리 조국을 《아름답고 고상한 나라, 후손들을 위한 건설의 나라》라고 격찬하였다.

나는 때늦게나마 손원태가 우리를 찾아와 길림시절을 회고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조국애와 민족애, 인간애로 넘치는 손원태의 모습은 그대로 손정도의 모습이였고 손인실의 모습이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주석님, 부디 늙지 말고 장수하십시오!》하고 말하군 했다. 나의 건강을 충심으로 걱정해주는 그의 모습은 60년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보던 손정도목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그날 손목사는 나를 바래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세가 삼엄한것만큼 길림에는 더 있지 말아주게. 이고장 형세가 이만저만 흉흉하지 않아.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어디 가서나 신변을 주의해야 하네. 간도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벽촌에 숨어서 정양을 하는게 좋겠네.》

나는 나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다심한 인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손목사의 조언이 얼마나 시기적절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은 9. 18사변후의 만주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해주었다. 길림을 점령한 일본군경들은 그때 나부터 찾았다. 그들은 길림감옥의 명부를 뒤지면서 군벌들에게 김성주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손정도목사를 비롯하여 고원암, 오인화, 황백하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의 후원으로 감옥에서 제때에 석방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붙잡혀 10년쯤 옥중생활을 더 하였을것이다. 10년만 철창속에 더 갇혀있었더라면 무장투쟁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내가 손목사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것은 이런 리유에서이다.

길림시절에 나를 도와주고 나의 혁명활동을 충심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을 헤아리자면 실로 끝이 없다. 그런 사람들가운데는 최만영, 오상헌, 김기풍, 리기팔, 최일과 같은 전세대의 운동자들도 있었고 최중연, 신영근, 안신영, 현숙자, 리동화, 최봉, 한주빈, 류진동, 최진은, 김학석, 우석윤, 김온순, 리덕영, 김창술, 최관실, 류수경과 같은 동년배의 선각자들도 있었으며 리동선, 리경은, 윤선호, 황귀헌, 김병숙, 곽연봉, 전은심, 안병옥, 윤옥채, 박정원, 곽기세, 정행정과 같은 애국소년들도 있었다.

나는 정세의 흐름으로 보아 길림에 더 머물러있을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직감하였다. 감옥안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했던바였다. 손목사는 자기 집에서 나를 보양시키지 못하고 떠나보내는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사의 권고를 고맙게 받아들인 나는 점심을 한끼 대접받은 후 인차 신안툰으로 향하였다.

(끝)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1월 1일 주체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럽고 의의깊은 혁명적경사로 빛내인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올해에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의 구호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전환을 가져오며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고 건설부문에서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고 제품의 질제고와 국산화를 정책적문제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며 산림복구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고 도시와 농촌, 일터와 마을을 알뜰히 꾸리며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와 강하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 모든 부문에서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리고 사회주의정치사상진지를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리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하고 사활적인 민족최대의 과업입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지난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세력들은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몰아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외세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우리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습니다.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입니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습니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공조〉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입니다.

오늘 미국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지배전략과 무분별한 반공화국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해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지난해 8월사태는 북남사이의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전쟁의 불씨로 되고 그것이 전면전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인내성있게 노력하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그러나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한 정의의 성전, 조국통일대전으로 단호히 대답해나설것입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온 겨레는 그것이 하루빨리 리행되여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6. 15공동선언, 10. 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해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거나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갔으며 추종세력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의 그 어떤 모략과 책동도 삶의 터전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꺾을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의 마지막부분에서 적대세력의 도전은 계속되고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지만 우리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　　*　　*

인민을 혁명의 강위력한 주체로 키워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을 혁명의 강위력한 주체로 키워왔다.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붓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단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는 조선로동당이다.

장장 70여년세월 당이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은것은 인민을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켜왔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인민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거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낡은 사상잔재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상혁명의 발단은 해방[주체34(1945). 8. 15.]후에 있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였다. 일제가 남겨놓은 모든 타락적이고 퇴폐적인 유습과 생활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민주조선의 일군다운 정신과 풍모, 도덕과 전투력을 전면적으로 키우며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민족적기풍을 창조하기 위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인민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운동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건설시기 등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수십년세월 모든 사업의 주선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나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됨으로써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가 뚜렷이 명시되고 그 수행에로 천만군민을 궐기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주체사상교양이 강화되고 온갖 낡고 이색적인 사상요소를 철저히 배격하기 위한 투쟁이 보다 강도높이, 공세적으로 벌어졌다.

인민을 혁명의 강위력한 주체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오늘 조선로동당이 높이 든것은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온 나라에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로작들과 유훈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 당의 혁명전통과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났으며 새로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파악하고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가는 곳마다에서 일어났다.

그 나날 마식령을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과 나라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을 받들고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건설 등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선포한 시간을 순간도 드팀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도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무책임성과 본위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갔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배심든든히 세인을 놀래우는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놓는 나날에 당이 믿은것은 오직 혁명의 강위력한 주체로 튼튼히 준비된 인민뿐이였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철통같이 뭉친 인민은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다.

이렇게 인민을 혁명의 강위력한 주체로 준비시키며 인민을 존중하고 중시해왔기에 인민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였으며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혁명의 주체로 준비되여 일편단심 조선로동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리워 전진한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을 혁명의 강위력한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는 반드시 건설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로승일

령도자의 제일중대사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셨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 그분들께서 진행하신 모든 사업의 맨앞에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일이 있었으며 그것은 어김없이 가장 훌륭히 실현되군 하였다.

오늘 조국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받아안던 열렬한 사랑을 변함없이 그대로 안고있다.

지난해 10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 글줄마다에 인민에 대한 열렬하고도 뜨거운 열기가 맥박치는 원수님의 그날의 연설은 조국인민을 격정의 파도속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그이의 품속에서 흘러간 사랑의 력사를 뜨겁게 되새겨보게 한다.

그 많고많은 사랑의 력사속에는 조국인민이 지금도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가는 나라의 최북단 라선땅에 펼쳐진 전화위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지난해 8월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도발을 걸며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 례년에 없는 폭우로 인한 큰물이 라선시를 휩쓸며 덮쳐들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긴장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라의 안전문제를 론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선시큰물피해복구문제를 토의하시고 인민군대가 맡아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리고 현지일군들을 찾으시여 피해지역인민들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하늘길, 바다길, 령길을 달려 한창 건설중이던 9월에 이어 새집들이를 앞둔 10월에도 이곳을 찾으시였다.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새로 지은 집이 본래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인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하시면서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신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육친적인 사랑속에 마련된 새 집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입사하였다. 그것도 텔레비죤수상기와 갖가지 의복류, 집기류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그리고 이제 닥쳐올 북방의 추위를 걱정하여 보내준 솜동복까지 받아안고 새 집에 들어섰다.

하기에 바로 그날 입사하는 사람들도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도 뜨거운 격정에 눈물지으며 이렇게 목놓아 웨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원수님은 우리의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십니다.》

진정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위한 일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삶을 누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전민학습의 대전당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웅건장중하면서도 특색있고 훌륭하게 일떠선 전민학습의 대전당 과학기술전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평양역-과학기술전당》이라고 로선을 밝힌 무궤도전차들도 과학기술보급거점인 전당으로 가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실어나르고있다.

문을 연지 얼마 안되지만 전당은 벌써 사람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되고있다.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을 형상한 전당의 연 건축면적은 10만 6 600여㎡이다.

야외의 과학기술상징탑과 전당의 중심홀에 설치된 지구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인공지구위성운반로케트의 모형은 여기가 과학의 전당이라는것을 알려주는듯싶다.

전당은 크게 종합적인 전자도서관과 전시장구역으로 갈라볼수 있는데 전시장구역은 응용과학기술관, 지진체험실, 가상과학실험실을 비롯한 부문별실내과학기술전시장과 미래의 에네르기구역, 과학유희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야외과학기술전시장으로 나눈다.

부문별실내과학기술전시장들에는 조작형, 느낌형, 가동형의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으며 손접촉식콤퓨터와 투영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기재들도 갖추어져있다.

과학기술보급실과 열람장소들도 서로 배합되여 꾸려져있어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원리와 방법들을 깊이 체득할수 있게 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고금철은 《지난 시기에 출판된 과학기술도서들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세계 각국의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자도서화한 방대한 자료기지가 구축되여있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에게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전국의 모든 과학연구부문,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은 물론 가정들에서도 국내콤퓨터망으로 실시간 편리한 봉사를 받을수 있으며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도 서로 교환할수 있다.

태양빛과 지열 등 자연에네르기로 조명, 랭난방을 보장한 에네르기절약형건축물, 록색건축물인 전당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수 있게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500석능력의 숙소도 있다.

락랑구역에 사는 전경심은 《여기서 지식의 탑을 한층한층 쌓아갈수록 나의 포부도 커만 간다. 로동자발명가가 되자는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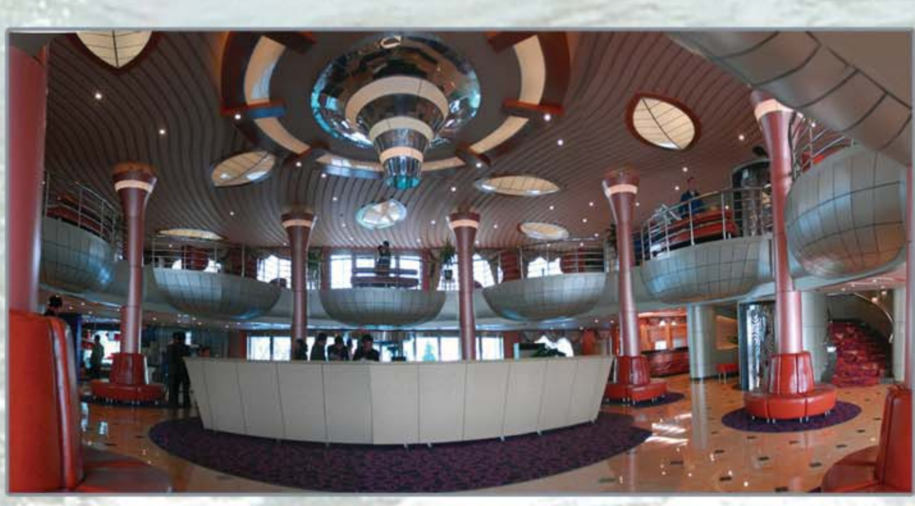
《무지개》호에 넘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풍치수려한 대동강에 새로 건조된 현대적인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떠있다. 배가 봉사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조국인민들뿐아니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즐겨 찾아오는 하나의 특색있는 봉사기지로 소문을 내고있다.

우리가 배에 올랐을 때에도 배안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느라 여념이 없는 안내원 김현화에게 힘들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생긋 웃으며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둥둥 뜨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겉볼 안이라고 훌륭히 꾸려진 《무지개》호에서 자기의 부모형제들과 꼭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 봉사자로서의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가고있다는것이였다.

그의 말대로 종합봉사선은 내외부가 다 이채롭게 꾸려져있었다. 특히는 내부에 꾸려진 민족료리식당이며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석식사실, 연회장, 회전전망식당 등은 그 형식이 다양하고 료리수준 또한 대단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있었다.



민족료리식당에서 만난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온 리명복은 말하였다.

《이렇게 멋진 식당에 척 앉아 민족료리를 맛보며 아름다운 대동강의 풍치를 보는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료리마저도 독특하고 더 맛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려가고있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막 부풀어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야외갑판식당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왔다는 허춘성로인은 《평양에 태를 묻고 살아오지만 이렇듯 황홀한 〈무지개〉호에서 춤을 추기는 처음입니다. 마치도 하늘의 무지개우에 올라 춤을 추는 심정입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그런 심정은 이곳 종합봉사선을 다녀간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적은 반영문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었다.

재미동포들은 반영문에 《대동강물우에 우뚝 선 〈무지개〉호선상에서의 식사는 환상이였습











니다. 조국의 음식과 봉사에 감사합니다. 정말 배의 시설도 최고, 맛도 환상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중국사람인 오상소는 《〈무지개〉호를 보니 조선의 창창한 래일을 보게 된다.》라고 적어넣었다.

우리와 만난 이곳 일군 한현정은 말하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면 저는 지난해 〈무지개〉호를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보군 합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진정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그대로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하기에 저희들은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더 뜨겁게 느끼게 할 열의로 일해나가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드높은 열의, 생산적앙양

우리가 평양메기공장을 찾았을 때 이곳에서는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공장일군 박영록은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이미 메기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지만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지금 공장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조를 이루며 드높이 진행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메기생산량을 훨씬 늘이는 문제, 물고기먹이소비단위와 생산원가를 낮추는 문제를 비롯하여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꼭 실천할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합지령실에 들어섰다. 지령실에서는 통합생산체계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직진행하고있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는데서 양어의 현대화이자 양어설비의 현대화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지난 기간 공장에서는 메기생산에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창안도입하였다.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였는데 올해 메기생산은 지난해보다 더 장성될것으로 보고있다.》



종합
지령실에서

지령원 신영일의 확신에 찬 말이였다.

그런 확신은 알깨우기호동, 야외못 등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었다. 그럴만도 하였다. 곳곳마다에 그들의 지혜와 노력이 깃든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었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그 재순환체계도 과학화되여있었다. 그리고 태양열물가열기를 받아들이고 야외못들에 박막을 씌운것을 비롯하여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생산을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화하고있었다.



메기의 먹이소비단위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성과들도 대단하였다.

이에 대해 기술일군 리영진은 말하였다.

《현재 우리는 메기먹이첨가제로 리용되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효소제, 여러가지 항생소들을 생산할수 있는 기술을 연구완성한데 이어 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생산된 첨가제를 메기들에게 먹여본데 의하면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병견딜성이 높아졌을뿐아니라 먹이소비와 생산원가가 현저히 낮아졌다. 그리고 나라의 흔한 원료에 의거한 세계적수준의 괭화먹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는데 그 전망이 열리고있다.》



새로운 먹이첨가제를
개발하고있다.



메기의 훈제가공



볼수록 희한하고 들을수록 귀맛좋은 이야기였다. 우리의 기분을 더해주는듯 박막을 씌운 야외못들에서는 찬 날씨이지만 다 자란 메기들이 메기수확기를 통해 쉬임없이 뽑어져나오고있었다. 멋들어진 광경이였다. 보다는 그 메기들이 그대로 훈제로 가공되여나오고 또 랭동창고에 그득히 쌓이는 모습이였다.

훈제작업반 반장 리현철은 말하였다.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는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념원대로 더 많은 메기를 더 좋게 가공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 결심뿐이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까지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유연창대직기생산을 적극 다그치며 그 성능을 훨씬 높이기 위한 문제 또 방직공장들에 있는 낡은 직기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며 방직기계들의 부속품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는 문제를 비롯하여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실현해가고있다.》



우리와 만난 이 공장일군 정한철이 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주물, 단조 등 생산의 첫 공정부터 시작하여 가공, 공구직장 그리고 생산의 마감공정을 말은 직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끓어번져 벌써 수백대의 낡은 직기를 개조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투쟁의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는 공구직장으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기계1작업반 반장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 밀착시키니 제품의 질과 생산성이 높아졌다, 25개종에 수천개의 직기장비와 부속품을 생산하면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필요한 젖가공설비들도 생산할수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창조한 CNC선반의 능력을 높여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과 합리적인 프로그람 등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한다.



생산적앙양은 정밀가공작업반에서도 일어나고있었다.

작업반은 설비생산에서 대단히 큰 몫을 담당수행하고있었다. 그것은 직기생산과 개조사업 그리고 새형의 직기생산에 필요한 고급한 장비와 부속품들을 대량생산하여 보장하여주기때문이였다.

이곳에서 만난 기술일군 홍달남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목표는 저와 같은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수준의 직기를 설계하고 시험생산해야 한다. 물론 아름차다.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가를 따져보기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지를 안고 반드시 실천할것이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자기의 힘과 기술로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해나가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수 있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생산된 설비들이 은을 낸다.



조선속담 [의심, 성의(없는것)]

-게사니가 부리(가) 있나
명백한 사실을 놓고 의심을 가지는 사람에게 놀림조로 하는 말.

-도적맞고 죄된다
도적을 맞고 공연히 남을 의심함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벼락치는 하늘도 속인다
무서운 하늘도 속인다는 뜻으로 남을 잘 속여 믿음이 가지 않는 행동을 비겨이르는 말.

-제 그림자도 믿지 못한다
제 그림자까지도 자기 그림자라는것을 믿지 못할만큼 의심이 많은 사람의 행동을 이르는 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
①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하여도 믿지 않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② 늘 거짓말을 하는자의 말은 그 어떤 말도 믿음이 갈수 없다는것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부처님 살찌고 여위기는 석수에게 달렸다
일이 잘되고 못된것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얼마나 성의를 다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코가 크고 작은거야 석수쟁이 손에 달렸다

-선떡을 받듯 하다
어떤 일을 마음에 달갑지 않은 태도로 받음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 * *

수 기

정규무력건설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여

인생의 황혼기이면 추억에 산다고 한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뜻깊은 날인 2월 8일이 다가오니 더욱 그러하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34(1945)년 8월 조국을 해방하신 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정규무력건설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것이였고 그 소중한 조국을 지켜내자면 강력한 총대가 있어야 한다는것이 그이께서 지니신 철의 의지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에 선차적힘을 넣으시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미시였다. 당시 그이의 로선을 받들고 현대적정규군건설을 위해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항일혁명투사들이 전국각지에 파견되였는데 그들의 지도밑에 많은 청년들이 군사정치간부들을 키워내는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사실 나도 그 학교에 가고싶어 여러번 떼를 써보았지만 나이가 어려 종내 뜻을 이룰수 없었다. 그래서 평양학원에서 공부하는 형님들을 찾아가보았는데 그때 군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해방전 토스레옷에 짚신을 끌던 형님들이 군대의 어엿한 기둥감들로 자라나고 있었던것이다.

나는 그때 형님들을 통하여 정규무력건설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많이 알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그이께서 학원개원식에서 하신 《평양학원 개원식을 축하하여》라는 연설내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새 조국건설에서 민족간부양성의 필요성과 평양학원창설의 목적 등을 밝혀주신데 이어 학생들이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투쟁정신과 원쑤를 미워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며 민족적자부심을 키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군사훈련에서는 현대적인 전법과 사격술을 련마하며 특히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고 한다.

그후 그이께서는 자주 학원에 나오시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며 정규무력건설의 앞길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드디여 주체37(1948)년 2월 8일 평양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되였음을 알리는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그때 나는 보무당당히 전진해나가는 열병대오를 바라보며 기어이 인민군대가 될 결심을 더욱더 굳히게 되였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인민군대에 입대한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39(1950)년 7월이였다.

당시 정규무력으로 된지 2년밖에 안되였던 청소한 우리 군대를 허술히 여긴 미제는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다. 하지만 미국은 오산했다. 명장밑에 약졸이 없고 강군은 명장밑에서만 자랄수 있다는 말과 같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자라난 우리 군대는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하며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나도 중기기관총 사수가 되여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총대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때였지만 지체없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가져다준 위대한 승리였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더욱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선인민군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게 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지영춘

세계과학원 청년회원

지난해 7월 국가과학원의 한 과학자에게 이런 통지문이 날아왔다.

《면밀한 조사와 추천, 선출과정을 통하여 당신이 2015년-2019년기간에 해당한 임기의 세계과학원 청년회원(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선출되였음을 기쁘게 통보하는바입니다. …》

또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리론물리학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제리론물리쎈터에서 그를 회원으로 임명한다는 통지가 왔다.

과학적능력과 우수성을 촉진하는것을 원칙적인 목적으로 하고있는 국제적인 과학연구기관들에서 회원으로 추천한 그는 바로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 김광현(37살)이다.

지금까지 그는 금속나노재료의 비선형광학응답리론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초고속분광기술, 고감도수감기술, 고속빛통신기술 등에 응용할수 있는 기초리론적결과들을 비롯한 많은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과학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그에게 조국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5칸짜리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고 황홀하게 일떠선 연풍과학자휴양소에서 제1기 휴양생활을 누리도록 해주었다.

그날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어머니, 이 은정에 나의 모든것을 다해 보답하렵니다. … 저는 과학으로 조국을 빛내이며 조선의 과학자들이 세계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꼭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자강도 만포시에서 태여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자여서인지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다. 미술가가 되고싶어 화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고 김하경과 같은 서예가가 되려고 붓대를 잡고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연구사업에 열정을 바쳐간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져온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읽으면서 점차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의 이름난 리승기나 계응상과 같은 과학자가 되려는 생각이 깊이 자리잡게 되였다.

그는 일단 손에 책을 잡으면 10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이라도 앉아있었다. 그러는 아들애를 보며 어머니는 은근히 그가 이름난 과학자가 되였으면 하는 소원을 품군 하였다.



김광현

그는 온 집안의 소원을 안고 강계제1고등중학교(당시)에 입학하였으며 리과대학을 거쳐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연구사로 되였다.

거침없이 자기 견해를 발표할 때면 당당한 연구사이고 모르는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줄 때에는 교원같기도 한

그에 대한 연구소의 기대는 남달리 컸다.

하여 그는 도이췰란드의 막스 보른 비선형광학 및 초고속분광학연구소와 훔볼트종합대학에서 박사반 연구생으로서의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그 나날 그는 레이자, 광학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잡지들과 국제학술토론회 론문집 및 개요집 등에 많은 론문을 게재하고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론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던 날 연구소의 그룹책임자는 당신은 정말 실력이 있다, 조선사람들은 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가고 말하였다고 한다.

광현은 주체103(2014)년부터 리과대학 겸임교원으로 사업하고있다.

연구사업과 론문집필, 론문지도 및 심의, 강의 등 빈틈없이 째여져있는 그의 하루일과는 광현으로 하여금 분과 초를 쪼개가며 일하도록 하고있다.

그의 앞에는 더 높은 목표가 세워져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대하여 다는 알수 없지만 야심만만하게 그 목적을 돌파할뿐아니라 과학으로 조국을 빛내일 과학자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결심만은 확고하다.

오늘도 그는 국제무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체육인들의 심정으로 국제잡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밝힌 론문을 제출하고 더 많은 과학자들이 조국의 이름을 떨치게 하기 위한 길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하고있는 원장 최순옥

고려치료로 생의 활력을 부어준다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해

조국에는 고려의술로 소문이 난 병원들이 있다.

그중에는 황해북도 중화군 룡산리인민병원도 있다. 이 병원은 행정단위말단 병원중의 하나이다.

병원은 물론 고려병원이라는 명칭은 달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고려의술로 연장시켜주는것으로 하여 전국에 소문이 났다.

우리는 지난해 마가을 어느날 평양에서 80리 떨어져있는 이곳을 찾았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병원앞은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한것은 언어장애와 왼쪽다리마비로 말도 못하고 걸을수도 없었던 은파광산마을의 13살난 소녀 리경실이 깔깔 웃으며 그렇게도 타고싶던 로라스케트를 타고있었던것이다.

병원앞마당이 좁다하게 로라스케트를 타고 돌고도는 경실이의 밝은 모습은 의사, 간호원, 부모는 물론 이 고장사람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이게 하였다.

알고보니 우리가 도착한 날이 마침 경실이가 퇴원하는 날이였다.

경실의 어머니는 《꿈만 같습니다. 우리 경실이가 로라스케트를 탄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서두를 떼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경실이가 한살이 지나 뇌막염을 앓았는데 그 후과로 말도 못하고 왼쪽다리에도 마비가 왔다는것이였다. 그때부터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치료도 해보았지만 별로 차도가 없었다. 점차 경실은 커갈수록 운동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고 로라스케트를 신고싶다는 시늉도 하였다.

부모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 그에게 로라스케트를 사주었다.

그러다가 룡산리인민병원에서 고려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최순옥원장을 찾아온 경실의 어머니는 딸애에게 로라스케트를 타보게 하는것이 소원인데 그거야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라도 제대로 할수 있게 해달라고 원장에게 간절히 부탁하였다.

원장은 경실이에게 손가락을 내밀며 말하였다.

《경실아, 약속하자. 내가 로라스케트를 꼭 타게 해줄게.》

이렇게 되여 원장은 경실이의 몸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찰하고 그에 따르는 침세기를 정하고 뜸과 부항을 따라세웠으며 고려약재로 매일 약도 달여먹이였다. 그 나날 원장은 병원옆에 집이 있었지만 한번도 퇴근해본적이 없었다. 리경일, 리창하 의사들은 교육자가 된 심정으로 여가시간에는 경실이에게 공부를 배워주었다.

의사들의 정성속에 경실이는 석달도 못되여 혼자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되였다.

지난해 10월 병원을 찾았던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토론회 참가자들은 노래 《불타는 소원》을 부르는 경실이에게 저마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병원의 로진순의사는 《경실이뿐만아닙니다. 선천성전신박약증에 걸려 말도 못하고 팔다리도 쓰지 못하던 12살난 정영명이도 여기서 치료를 받고 웃으며 걸어나갔고 하반신마비인 특류영예군인들도 일어섰으며 옥동자도 받아안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병원에서는 고려치료로 뇌출혈, 뇌혈전환자들은 물론 좌골신경통, 다발성신경염, 안면신경마비, 고혈압 등 신경계통의 만성질병환자들과 난치성질병환자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 경실의 두볼을 다독이며 원장은 말하였다.

《인사는 나에게가 아니라 돈 한푼 받지 않고 너를 치료하도록 해준 고마운 조국에 하거라. 그리고 조국을 위해 많이 배우고 큰일을 하거라.》

지난해에 원장은 나라의 명의사로 등록되였으며 공훈의사칭호도 받았다.

병을 고친 은파광산의 리경실소녀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제3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승의 비결

평양산원에서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면 응원자들의 열띤 응원속에 치렬한 롱구경기가 벌어지군 한다.

계획적으로 어김없이 진행되는 롱구경기, 우리가 평양산원을 찾았을 때에도 산과부문 의사들을 한팀으로 하고 부인과부문 의사들을 한팀으로 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 나서고있었다. 선수들모두가 끌끌하였는데 젊은 선수들속에 나이가 40~50살을 넘긴 박성봉, 변영학과장들이 섞여있어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부인과 의사인 리금성주심이 경기장 중앙원안에서 공을 우로 올리였다.

경기가 시작되였다. 처음부터 경기는 치렬한 공방전속에 진행되였다.

두팀선수들은 체격과 공다루기기술이 서로 비슷하였는데 그들은 방어를 돌파하기 위한 공격기술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선수들은 련락, 잡기, 넣기, 몰기, 몸빼기, 급출발, 급정지, 방향바꾸어달리기, 돌기 등으로 공격을 하는가 하면 공격자의 위치와 활동에 따라서 취하게 되는 방어자세와 이동수법, 공쳐내기와 공가로채기 등의 방어기술로 서로 대항하였다. 확실히 부인과팀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보아야 하는것이 체육경기였다.

거기에다 《이겨라, 이겨라.》, 《슛, 야-》 하는 열정적인 응원은 서로 공을 빼앗고 빼앗기며 경기가 거의나 동점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선수들의 몸에서는 더운김이 확확 뿜어져나왔고 응원하는 사람들의 몸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넘쳐났다.

어느덧 경기의 마감시간이 되여오는 때였다. 부인과팀의 주장 김형진선수가 라평일선수한테 넘겨준 공이 그만 정확히 련락하지 못하여 그 공이 산과팀의 주장 한성진선수의 손에 들어갔다. 순간 뽈이 획 포물선을 그으며 그물안으로 들어갔다. 《야!- 》하는 환성소리와 함께 경기는 68 : 64의 점수차이로 산과팀이 이긴 가운데 끝났다.

우리와 만난 주심 리금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부인과 의사이니 부인과팀이 진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기를 하고 응원도 하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고 체육기술 또한 늘어나니 정말 좋습니다. 집단안의 분위기도 그래 치료성과도 역시 좋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진행되는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롱구경기에서 매번 1등을 하는데 그 비결은 집단안에 체육열풍, 롱구열풍을 불러일으킨데 있다고 봅니다. 올해에도 1등할 자신이 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 평





과들사이의 대항경기

상 식

전기포단의 사용에서 알고 있어야 할 문제

전기포단은 하나의 리상적인 가정용물리치료기구이다.

전기포단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만성관절염, 콩팥염, 위염, 허리와 어깨아픔, 신경쇠약, 불면증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온열료법으로서 전기포단을 리용하여 암환자의 체온을 높여 암세포를 죽이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확고한 근거도 없이 전기포단이 사람의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함으로써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있다. 그들은 전기포단이 전기마당을 만들어 피를 마르게 하고 임신하였을 때에는 태아의 성장발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검토한데 의하면 가정용전기포단은 약간의 전자기파를 내보낸다고 한다. 이 전자기파는 방송탑에서 나오는 전파와 성질이 같은것이다. 220V에 40W짜리 전기포단 전류의 세기는 0. 2A밖에 안된다. 이런 세기의 전류가 만드는 전기마당은 아주 보잘것 없는것으로서 지구의 자기마당세기보다 약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전류가 만드는 전기마당이 사람들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발육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기포단은 중년기이후 사람들속에서 가려움증이 생겨 잠자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전기포단속의 온도가 높기때문에 피부가 마르면서 그의 감각신경이 예민해져 약간의 자극만 받아도 가려움증이 생기는것이다.

그러므로 전기포단속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최저온도로 조절하거나 잠들기 전에 꺼야 하며 될수록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여 피부가 마르는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고기, 물고기, 알, 식물성기름 등을 일상적으로 골고루 먹어 피부를 튼튼히 하면 가려움증을 막을수 있다.

* * *

고향소식

열두삼천리벌에 자리잡은 숙천

지난해 가을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평안남도 숙천군으로 이어졌다.

뻐스를 타고 숙천읍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눈앞에 드넓은 벌이 안겨왔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선들선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전경은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야-, 벌이 넓긴 넓구만.》

《그래서 열두삼천리벌이라 부르는게 아니겠소.》

뻐스안은 열두삼천리벌과 농사작황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흥성이였다.

뻐스에서 내린 우리는 마중나온 군일군인 김금철을 만났다.

《열두삼천리벌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 벌가운데 놓여있는것이 바로 우리 숙천군입니다. 해방전 관개시설이 없어 가물과 큰물피해, 깨끗치 못한 물로 하여 농민들의 눈물과 원한이 서리던 고장이였습니다. …》

그의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해방후 숙천군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토지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도록 하시고 평남관개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이 가슴에 안겨왔다.

뜨거움에 젖어있는 우리에게 김금철은 주체50(1961)년 12월 또다시 숙천땅을 찾으신 수령님께서 농업도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할 때가 되였다고 하시면서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하여주시고 그안에 갖추어야 할 기구와 부서까지 짜주시였으며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그리고 수십대의 뜨락또르와 자동차,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예비부속품들도 일식으로 보내주시여 기계가 농민들의 일손을 대신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열두삼천리벌에 사회주의리상촌을 펼쳐주시고 농민들이 마타리물을 마셔야 되겠는가고 못내 걱정하시며 연풍호의 맑은 물을 음료수로 리용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고저 이 고장사람들은 애써 일하였다. 그들은 부침땅을 늘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을 높이였다. 그리고 야산을 비롯한 적지들을 개간하여 과일밭도 많이 조성하였다.


생산의 동음높이 울리는 숙천진성피복공장

오늘 숙천군은 논벼 정보당 및 총생산량이 제일 높은 군들중의 하나로, 과일생산량이 도적으로 가장 높은 군들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복숭아, 추리, 포도 등은 그 맛이 단것으로 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져있다.

일군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읍거리를 돌아보았다. 해방전 농가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그마한 농촌마을이였던 이 고장에 거리가 규모있게 형성되고 량옆에 문화주택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아있었다. 소학교, 초, 고급중학교들과 숙천농업대학에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나오고 현대적으로 꾸려진 군인


숙천군인민병원에서의 먼거리의료봉사활동


숙천유치원에서


영웅숙천고급중학교 학생들


숙천군농기계작업소에서



민병원에서는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생산조건에 맞게 배치되여있는 식료, 일용, 건재, 피복같은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자체의 원료에 의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었다.

읍뿐아니라 리들에도 문화주택들과 문화회관, 상점 등이 건설되여있어 근로자들이 비록 소박은 하지만 걱정없이 생활하고 일하고있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있는 엄주연동포의 외조카 신제철의 집에도 들려보았다. 겉볼 안이라고 살림집의 외부도 괜찮았지만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등 편리하고 쓸모있는 내부 또한 도시살림집 못지 않았다.

《외삼촌은 보내오는 편지들마다에 고향에 대하여 자주 쓰군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답편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조국에 한번 와서 고향의 모습을 보고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외삼촌이 고향땅을 찾으면 어제날의 모습을 도저히 찾을수 없을것입니다.》

어느덧 땅거미가 깃들어 들판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낟알향기,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하는 집집의 창가 등이 마음속에 흘러들자 우리는 저도모르게 감미로움에 젖어들었다. 그래서인지 보다 좋아질 숙천땅의 래일을 그려보게 되는 우리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로쇠를 모르는 연구사

과학기술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해나가고있는 과학자들 가운데는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사 박재룡도 있다. 그는 훤칠한 키와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하여 과학자라기보다 오히려 체육인과 같은감을 더 준다.

하지만 집에서나 연구소에서나 늘 손에 책을 들고 거기에 심취되여있는 모습은 그가 지닌 실력의 높이를 가늠하게 한다. 평성석탄공업대학과 리과대학, 연구소 박사원의 겸임교원인 그를 학생들과 연구사들이 그처럼 존경하며 따르는것은 그가 지니고있는 높은 실력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박식가, 걸어다니는 사전, 로쇠를 모르는 연구사라고도 한다.

그가 지닌 지식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기계공학분야뿐아니라 체육, 음악 지어 기상예보에 이르기까지 거의나 모르는것이 없다고 한다. 하기에 그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실안의 연구사들이 한달 혹은 한해가 시작되면 의례히 날씨에 대해 묻는다는 이야기가 늘 뒤따른다.

박재룡에 대하여 말할 때 제일먼저 꼽는것은 그의 탐구자세이다. 참고자료와 책들을 얼마나 보고 또 보았는지 집의 책장에 보풀이 일지 않은 책들이 없고 일본어, 로어, 영어사전들도 역시 그렇게 보풀이 일었다는 사실은 그가 지닌 탐구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준다.

연구사업을 하는 나날에 그가 제일 관심을 돌린것은 금속재료들에 대한 침탄(표면에 탄소를 입혀 마모되지 않게 하는것)이였다. 그가 연구사업을 시작할 때 나라의 침탄실현은 시작이나 다름없었다.



박재룡

박재룡은 설비의 수명을 3~4배로 늘이는 침탄을 실현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선의 과학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싶었다. 그리하여 밤을 새워가며 침탄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시키였고 그 실현을 위해 주체57(1968)년에는 기양뜨락또르공장(당시)으로 달려갔다. 그의 목표는 그때에 하고있던 고체침탄이 아니라 기체침탄의 실현이였다.

그 길은 순탄치 않았다. 더우기 내열관반응로를 없애고 새로운 형식의 침탄로를 만드는 과정은 정말 힘이 들었다. 그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공장의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가며 탐구의 나날을 보내였다. 그러느라니 몇달에 한번씩 집에 들어가는것이 고작이였고 그것도 잠자는 집식구들을 보기가 일쑤였다. 마침내 새로운 기체침탄설비들을 개발하기 위한 길이 열리였으며 그가 이룩한 성과들은 점차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많은 리득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가 기술자들과 함께 만든 제품을 보시고 기계공학연구소에 감사를 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더 큰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하려는 열의를 안고 이번에는 승리자동차공장(당시)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한해, 두해 세월은 흘러 어느덧 그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지만 순천비날론공장(당시),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 등 현대화실현을 위해 공장들로 향하는 그의 탐구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가 만든 어느 한 공장의 열처리직장에 있는 설비들을 보시고 직장을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이런것을 보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것이라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젊은 연구사들과 함께

장군님의 교시를 받아안던 날 그에게는 지나온 나날이 돌이켜졌다.

일본에 있을 때 조국으로 가서 마음껏 배움의 나래를 펼치라며 자기의 등을 떠밀어주던 고등공업학교 담임교원의 얼굴이며 조국의 품에 안겨 김책공업대학(당시)에서 지식의 주머니를 한껏 채워가던 나날, 연구소에서 보내던 힘들면서도 보람찬 연구의 나날들.

생각할수록 자기의 꿈이고 사랑이고 보람인 연구사업을 더 많이 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결심이 굳혀졌다. …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도서들을 집필하였다. 조선대백과사전을 비롯하여 전공분야의 교과서와 참고서들과 《기계공학분야의 발전추세》 등 출판물에 낸 론문들은 셀수 없이 많다고 한다. 그가 로씨야, 뽈스까 등 여러 나라에서 발표한 론문들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공훈과학자이며 교수 박사인 그는 금속재료 및 주조학위론문분과위원회 위원이며 금속재료협회 회원, 기계공학연구소 과학평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일흔을 넘긴 나이이지만 오늘도 그는 근 40년간 걸어온 과학탐구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박재룡의 가정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길신화서점 김순선조카 앞

고목에도 꽃을 피운다

조카 순선아, 그동안 잘 있었니.

이젠 너도 손주들을 거느린 할머니가 되였겠는데 이렇게 너무 허물없이 부른다고 나무람하지 말아.

아직도 언제인가 평양고려호텔에서 나를 만나 우리 민족풍습대로 큰절을 하며 외삼촌, 외삼촌어머니를 못 보고 가는줄 알았다고 하며 눈시울을 적시던 너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

정말 흐르는 세월은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는가싶다.

나와 로친은 늘 곁에 있는 자식들보다 멀리에 있는 네 걱정을 더한다.

연변자치주 기자협회 주석을 하던 남편이랑 잘 있는지, 새살림들을 편 금화와 금철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

그래서 네가 보고싶을 때면 너의 가정이 찍은 사진을 보군 한다.

너도 군복입고 찍은 나의 사진을 받아보았겠지.

난 정말이지 자다가도 불쑥 깨여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과 60돐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과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받아안은 선물들을 보군 한다. 그럴 때면 그 은덕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가 하는 생각이 끝없이 깊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구나.

내가 10여년전에 너의 집에 갔을 때 들은 말이지만 그곳에는 청춘밥이라는 말이 있더구나. 즉 청춘시기가 지나면 밥벌이도 하기 힘들다는 소리겠지.

그러나 나는 청춘시기는 물론 고목에도 꽃을 피우며 아무런 불편없이 살고있다.

조국에서는 우리 전쟁로병들을 귀중한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고있다.

전쟁로병부부인 나와 로친이 조금만 아파해도 의사선생이 달려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떠미는구나.

그래서 나와 로친은 여든이 지난 나이에도 젊음에 넘쳐 신문을 보고 글도 쓴다.

정말 전쟁로병들에게는 모든것이 우선권이다.

뿐만아니라 명절날이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저저마다 찾아와 우리 부부를 축하해주고 전투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지.

얼마전에는 나와 함께 살고있는 막내딸 미옥이의 아들 규성이가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에 갔댔는데 거기서도 로병의 손자라고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전투실화담을 들려달라고 아이들이 성화를 먹였다고 하지 않겠니.

그럴수록 전쟁로병이라는 긍지와 43년간이나 복무의 길을 걸어온 그 자욱이 되새겨지며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 일을 찾아 할 결심이 솟구치군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쌓고 남은 돌이 되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 로친까지 휘동해가지고 일감을 찾느라 하지. 일을



한들 다 늙은게 힘이야 쓰겠느냐만…

그저 자식들의 거울이 되여야 그들도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칠수 있다는 생각에서이지.

순선아, 조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너에게 이렇게 말하자니 좀 거북하지만 우리모두가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할 때 조국이 끝없이 번영하는것이 아니겠니.

부디 건강해라.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쓴다.

평양시 동대원구역 신흥3동
15인민반 김국경

혈육의 정

얼마전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광복거리에 위치한 김영복녀성의 가정은 여느때없이 흥성이였다.

중국 료녕성 단동시에서 살고있는 둘째딸 성옥이가 오래간만에 두 자식을 앞세우고 조국방문차로 집에 들린것이였다.

효진이를 비롯한 손자, 손녀들의 청높은 노래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즐거움에 젖어있는 영복에게 성옥이가 한권의 《금수강산》잡지를 펼쳐보이였다.

잡지에는 동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성옥이에 대한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있었다.

돋보기까지 찾아 끼고 기사를 단숨에 읽은 영복은 잡지의 매 페지들을 하나하나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그는 문득 재우즈베끼스딴동포녀성의 인상기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김 엘라… 아니, 혹시 그 애가 아닐가.》

영복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였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성옥은 영복에게 다우쳐 물으며 어머니의 손에 펼쳐져있는 잡지를 받아들었다.

한동안 깊은 숨을 몰아쉰 영복은 성옥이에게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엘라와 이 동포가 비슷하지 않으냐?》라고 물었다.

《글쎄요.》

김영복은 세월의 이끼에 덮이여 기억에도 삭막해진 수십여년전의 일을 더듬으며 저도 모르게 회상에 잠겨들었다.

가렬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몇해후 어느날 저녁이였다.

영복이 살고있는 자강도 랑림군의 산골집으로 먼길에 지친 한 낯선 녀인이 찾아들었다.

영복의 아버지 김상남은 그 녀인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북청에서 사는 녀인은 촌수를 따져보면 영복의 아버지켠으로 먼 친척벌이 되였다. 해방전 상남은 아버지와 둘째동생 정화가 로씨야로 떠난 후 몇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와 여섯이나 되는 동생들과 함께 북청을 떠나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해방후 랑림군에 정착하여 살게 되였다. 북청에서 상남과 한동네에서 산 그 녀인은 우즈베끼스딴에서 정화가 김상남의 앞으로 부쳐온 몇통의 편지를 안고 무척 어려운 걸음을 했던것이였다.

상남은 편지들을 받아들자마자 너무도 꿈만 같아 눈물부터 주룩주룩 흘리였다.

20여년전 상남의 아버지는 둘째 정화를 데리고 땅도 넓고 일할 곳도 많아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자기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인차 돌아오겠다는 한마디 약속을 남기고 두만강을 건너갔던것이였다.

그것이 한 가족의 운명에 영원한 리별이라는 뼈아픈 슬픔으로 남아있게 될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었다.

해방이 되여 많은 땅을 분여받을 때에도, 전쟁의 포화가 멎은 뒤 복구건설과 함께 새 생활이 창조되여 살림살이가 늘어날 때에도 상남은 이역의 하늘아래에서 이제나저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혈육들을 그리워하고있을 아버지와 동생을 언제 한번 잊은적이 없었다.

정화의 편지에는 자기들 부자가 조국을 떠나 이역땅에서 피눈물을 뿌리며 간난신고한 만단사연이 그대로 적혀있었다. 그리운 식솔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빈손으로라도 돌아가려던 마음까지 합쳐…

편지봉투안에는 정화네 가족사진도 한장 들어있었다.

그때 열두어살밖에 안되였던 영복은 철이 든 후에야 아버지네 가정의 비극적사연을 리해하였고 자기 나이와 비슷한 사촌동생 엘라의 얼굴을 늘 사진으로만 익히게 되였다.

그후 삼촌과 몇차례의 편지거래가 있은 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마저도 끊어지게 되였다. …

영복은 잡지의 사진을 뜯어보며 동생의 어릴적모습을 애써 찾았다. 그러다가 어느 함에서 색날은 편지봉투를 찾아 거기에서 사진을 꺼내들어 성옥에게 보이는것이였다.

《이 애가 바로 엘라다. 그애도 아마 지금쯤은 이 동포녀인의 나이는 되였을거다.》

동생 엘라도 선조들의 뼈가 묻힌 고국을 무척 그리워할것이고 또 언제인가는 이 땅을 꼭 밟을것이다. 생각할수록 김영복의 가슴은 엘라를 만나기

라도 한것처럼 무등 설레이였다. 금시라도 손을 내밀면 그의 손이 잡힐것 같았고 그와 손을 잡기만 하면 수십년동안 막혀있던 피줄에 혈육의 뜨거운 정이 통할것 같은 심정이였다.

그날 밤 영복은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지난날 조국을 잃은탓으로 강요당하여야만 하였던 그 리별의 아픔으로 영복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조국에서 행복을 누릴 때마다 이국에서 살고있는 삼촌과 동생이 더더욱 그리워지고 모든 복을 함께 누리며 살고싶은 마음을 년년이 쌓아두던 영복이였다.

그는 《금수강산》잡지를 가슴에 꽉 그러안았다.

마치 자기의 품에 동생을 안아보듯이.

그러는 그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

그후 김영복이 잡지에 실리였던 재우즈베끼스딴 김 엘라동포에 대하여 알아보니 동포는 영복의 사촌동생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였다.

나와 같은 아픈 사연을 안고 뜨거운 정으로 가슴을 끓이며 혈육들이 서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라가 없어 헤여지고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헤여지고…

그 정은 결국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전체 조선민족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라도 끝까지 이룩해야 할 뜨거운 통일열망이 아닐가 하고.

본사기자 연 옥

그리움을 안고 부른 노래

뜻깊은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이하게 될 평양은 어디 가나 경축분위기로 들끓는다.

경축분위기에 휩싸인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만났던 재중동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 그들은 조국과 몸은 떨어져있어도 마음은 언제 한번 떨어져있은적이 없다며 짬시간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를 자자구구 학습하였으며 2월의 명절에 내놓을 경축공연준비를 열심히 하였다.

더우기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동포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한평생 인민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동포들을 한집안식구들로 품어주시고 아파할세라 조국에 데려다 치료도 해주시였다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우리모두가 애국공민으로 성장하였다고 동포들의 심정을 담아 격정에 넘쳐 설화시를 읊던 주계숙동포,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를 부르며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들던 안미자, 고영석을 비롯한 동포들,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더 잘 형상하기 위하여 품을 아끼지 않던 천재련, 김영옥동포들과 춤가락을 세련시키던 최시웅, 허상숙동포들.



광명성절경축공연을 준비하는 재중동포들

주체104(2015)년 10월 촬영

동포들이 숙식하던 평양고려호텔에서 밤늦도록 울려나오는 노래소리와 춤가락은 2월로 향한 동포들의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노래는 인간의 사상감정의 분출이라고 동포들의 이런 마음에 떠받들려 이역땅에 펼쳐지는 광명성절이 더욱 이채로와지는것이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시

연변의 진달래 왕청의 진달래



김일성주석님
혁명전적 깃들어
김정숙어머님
그 충정 어리여
붉게붉게 피여나는
연변의 진달래
왕청의 진달래

산에 산마다 진달래
골에 골마다 노래라오
아,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오
나는 못 떠난다오

백두산자락
두만강기슭
내 사는 고장 연변
내 마음의 고향 왕청

백두산자락
두만강기슭
내 사는 고장 연변
내 마음의 고향 왕청

산은 산마다 진달래구요
골은 골마다 렬사들 노래라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차상모

상 식

일년량식 장 담그기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김장은 일년의 반량식이라하고 장은 일년량식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매해 립동때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우수 혹은 경칩무렵까지 어느 집에서나 장을 담그었다.

장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담근다.

메주를 잘 쑤자면 먼저 콩을 깨끗이 손질하여 씻은 다음 일어서 4~5시간동안 충분히 불군다. 다음 솥에 넣고 물이 다 잦을 때까지 푹 삶는다.

콩이 푹 무르면 뜨거운 그대로 절구에 넣고 콩짜개가 드문드문 보일 정도로 찧는다. 찧은 콩을 직경이 10㎝정도의 크기로 둥글납작하게 빚어서 방 한구석에 벼짚을 펴고 메주가 서로 닿지 않도록 널어놓는다. 이때 방바닥의 온도는 25~30℃가 좋다.

겉마른 메주를 짚으로 엮은 그릇에 넣고 잘 덮어서 더운방에 놓고 약 두주일동안 푹 띄운다. 메주를 그릇에 넣을 때 짚이나 생솔가지를 돌기마다 깔면 더 잘 뜬다.

메주를 쪼갰을 때 속이 누렇고 검은빛이 보이면 잘 뜬것이다. 잘 뜬 메주를 꺼내여 새끼로 얼기설기 엮어서 얼지 않도록 적당한 곳에 달아맨다.

장을 담그기 며칠전에 메주를 해빛에 말리운다. 이때 메주를 깨끗한 마른천으로 닦거나 물에 재빨리 씻어서 호두알만 한 크기로 쪼개여 말린 다음 가루를 낸다.

이렇게 만든 메주가루에 덧밥과 소금을 섞어 발효, 숙성시켜 된장을 만들고 찹쌀, 보리를 섞어 맛있는 찹쌀고추장, 보리고추장도 만들수 있다.

장은 오래 묵여둘수록 더 맛이 있기때문에 한두해 또는 그 이상 저장해두고 일상적으로 먹었다.

장은 영양가와 약효가 높으며 부식물의 맛을 돋구는 주원료로뿐아니라 직접 부식물로도 되므로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것으로 되였다.

장 담그기를 통해서도 조선민족의 장의 발전력사가 매우 오래며 조선이 콩의 원산지라는것을 알수 있다.

* * *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고국이 해방된지 70년이 되였다. 이번에 평양에서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니 참으로 생각이 깊어진다. 조국해방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력사적사변이였다.

돌이켜보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은 지난 세기 초엽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암흑시대에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한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위인이였다.



민족의 그 념원을 **김일성**주석님께서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빼앗긴 나라는 남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민족의 힘으로,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되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시고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시였으며 인민들의 힘에 의거하여 항일전쟁을 벌리시였다. 백두광야에서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그이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가 있어 마침내 조선민족은 조국해방의 밝은 빛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 나날 그이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것은 무엇이였겠는가. 망국은 순간이며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아니였겠는가. 하기에 그이께서는 해방후 군건설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여 미국의 무력침략으로부터 공화국을 수호하시였고 전후에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병진로선도 제시하시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시였다.

20세기가 다 저물어가던 시기 고국인민앞에는 커다란 시련과 난관이 겹쳐들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련이은 붕괴, 몇년째 지속된 자연재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 침략책동…

더우기 주석님의 서거는 그이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살던 고국인민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세계는 조선이 어느 길을 택하고 그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제나름의 추측들을 하였다. 그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1995년 새해 아침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대한 시찰로 주석님의 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이어가실 결심과 의지를 세계앞에 보여주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였다.

현 세계에서 막강한 군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운명을 지킬수 없다는것을 그이께서는 벌써 내다보시였던것이다.

선군은 공화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고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지고싶어도 쉽게 가질수 없는 핵을 보유하게 하였고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라는 세계에 몇 안되는 강국대렬에 들어서게 하였다. 지금 고국은 경제강국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로 달음치고있다.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해 시련의 흔적이 가시여지고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였다. 선군정치가 아니였다면 조선이 열백번도 넘어지고 다시는 추서지 못했을것이라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고 세인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주석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해놓으신 업적은 **김정은**원수님시대에 와서 더욱 굳게 다져졌으며 그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평양시에 일떠선 옥류아동병원과 문수물놀이장 등을 돌아보면 원수님의 위인상을 알게 되고 즐비하게 일떠서고있는 주택지구들과 대중봉사기지들, 문화정서생활시설들을 통하여 그분의 지도력과 덕행이 얼마나 출중한가를 알수 있다.

대대로 위인들을 모신것이야말로 조선의 행운이 아닐수 없으며 그것으로 하여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2015년 8월 평양에서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 대표 로길남

청년들의 모습에서



나라의 미래는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모습에 그 나라의 전도가 비낀다.

2000년부터 다섯번째로 고국을 방문한 나는 고국청년들의 모습에서 많은것을 느꼈다.

그들은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으며 사회에 건전한 분위기가 차넘치도록 하고있다.

고국청년들은 나라의 방방곡곡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전적지들을 잘 관리하고 참관사업을 자주 진행하면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발전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자식을 똑똑히 키우려면 조선에 보내라는 말이 류행되고있다.

고국청년들은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곳이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이든, 농촌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며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다.

이런 청년들이기에 한두해도 아닌 오랜 나날 살을 에이는 북방의 혹한속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일떠세운것이다.

그래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은 청년강국으로 자랑떨치고있다고 하시였으며 그들을 청년강국의 주인들로 내세워주시였다.

청년강국, 이 가슴벅찬 부름은 고국에서만 들을수 있는 부름이다.

정말 고국의 휘황찬란한 미래가 보인다.

중국 료녕성조선족로인협회
상무부회장 진희선

민족의 힘이 제일이다

나는 해외동포 3세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하였다.

나의 이번 방문이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진행된것으로 하여 더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고국에서는 이번에 나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을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 대표로 초청해주었고 혈육의 정으로 반겨맞아주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대회에 많은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는데 이것은 민족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그러나 이 의의깊은 행사에 남조선의 대표들이 참가하지 못하였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정권》이 대화요 뭐요 하면서도 민족공동행사에 대표들을 참가시키지 않은것은 그들의 이중적립장을 잘 보여준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일이지 결코 미국의 일이 아니다. 남조선《정권》은 한사코 동족대결과 분렬을 추구하는 미국의 풍에 놀아날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을 합치는 길로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력대로 미국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았으며 오히려 방해만 놀았다.

뭐니뭐니해도 민족의 힘이 제일이다. 조선민족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칠 때 그 힘은 더 커질것이며 통일의 길에서 못해낼 일이 없을것이다.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지만 민족의 힘을 합치고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기 위한 길에서 나도 조선민족성원된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2015년 8월 평양에서

로씨야 고롱련 신 안드레이



발해 및 후기신라의 민족예술

우리 민족예술은 고대, 삼국시기를 거쳐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에도 민족적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발전하였다.

7세기 중엽 고구려, 백제가 망한 다음 우리 나라에는 대동강이북의 옛 고구려땅에 세워진 발해와 대동강이남의 신라가 존재하게 되였다. 이때의 신라를 후기신라라고 한다.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한것으로 하여 이웃나라들에 《해동성국》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발해와 후기신라인민들은 일상적으로 가무를 즐기고 풍부한 정서생활을 하였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면서 성악과 기악을 다같이 발전시켰는데 그 과정에 우수한 예술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발해에서는 고구려시기부터 특색있게 발전시켜온 민족악기들을 새로운 현실과 생활에 맞게 계승하였다. 뛰여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들은 연주활동과정에 가야금, 거문고, 저대를 비롯한 기악독주곡들과 큰 규모의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무용반주곡들을 수많이 창작보급하였고 그 음악적성격을 규제하는 고유한 악조들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적색채가 짙고 인민들의 창조적로동생활과 정서를 반영한 민요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학정과 착취를 조소, 폭로한 참요들도 널리 보급되였다.

발해와 후기신라에서는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가진 민간예술인들이 각지에서 널리 활동하였으며 그들이 창작한 인민적인 예술형식에 토대하여 궁중음악도 발전하였다. 발해와 후기신라의 궁중에는 큰 규모의 악단들이 있었고 위풍있는 군악대도 활동하였다.

민족무용예술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발해의 《답추》, 후기신라의 《해가》 등은 앞선 시기부터 진행된 민속가무이지만 그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형식에서도 자유로운 막춤형식으로가 아니라 일정한 예술적구성을 가진 가무로 발전하였다.

발해 및 후기신라의 인민들은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여 긴소매옷춤, 탈춤과 같은 춤들을 많이 추었다. 발해의 상경유적에서 고구려의 유적이였던 고국원왕릉에 묘사된 탈춤과 류사한 형상의 동조각품이 발굴된것, 룡춤, 학춤이 추어진것, 후기신라의 재능있는 문인 최치원이 쓴 《향악오기》의 한시 5편중에서 4편이 각이한 탈춤들을 묘사한것이라고 볼 때 이 시기 탈춤이 얼마나 많이 추어졌는가를 짐작할수 있다.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한 민속무용에 토대하여 궁중무용도 발전하였다. 발해와 후기신라의 궁중무용예술은 그 예술성이 높아 국내에서뿐아니라 이웃나라들에도 널리 전해졌다. 옛문헌에도 발해예술인들이 금나라와 일본에서 음악무용활동을 한 자료들이 있다.

이 시기 민족공예분야도 대단히 발전하였다.

발해사람들은 고구려의 도자기전통을 이어받아 아름다운 도기들과 자기들을 만들어 세상에 그 명성을 떨치였다. 발해사람들은 음식그릇류, 의료용기류, 꽃병을 비롯한 각종 도자기들을 만들었는데 장식이 간소하고 형태가 자연스럽고 세련되였으며 색갈이 밝고 부드러운감을 주며 견고한것이 특징이다. 특히 발해의 삼채가 유명하였는데 여러가지 색갈유약의 능란한 활용과 배합, 무늬와 유약의 결합은 발해의 자기제조술과 높은 공예술, 예술성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발해자기는 그릇살이 얇고 가벼우며 견고하여 대외적으로도 소문이 났다.

이뿐아니라 발해 및 후기신라의 인민들은 교예예술분야에서도 뛰여난 재능을 발휘하여 세상사람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822년 발해사람 왕문구가 일본의 궁중행사에서 놀라운 격구재주를 보여주어 그것을 보고 경탄하여 지은 시가 후세에까지 전해진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발해와 후기신라의 인민들은 앞선 시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날로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그 형식들을 더욱 발전시켜 민족의 슬기와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과시하였으며 우수한 전통은 그후 민족예술발전의 튼튼한 토대로 되였다.

민속학연구소 박사 김선영

사 화

연안성을 지켜낸 리정암

연안부사와 리조참의를 지낸바있는 리정암은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난 1592년에 의병을 뭇고 황해도 초토사로 임명되였다.

그가 북으로 기여드는 왜적들을 막으려고 연안성으로 갔을 때 부사는 이미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성에 있던 군사들도 왜적들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문을 듣고 사방으로 흩어지고있었다.

리정암은 성문에서 두팔을 벌리고 흩어져가는 군사들을 막으며 소리쳤다.

《잠간들 섰거라. 나는 이전에 이곳의 부사였던 리정암이다. 그대들은 가더라도 한가지 부탁을 들어주고 가야 하겠다.》

《…》

군사들은 주춤거리면서 그의 앞에 모여섰다.

《저 군영곁에 쌓여있는 새초단을 날라다 이 성문앞에다 높이 쌓아놓고 가거라.》

리정암이 거듭 독촉하자 군사들은 욱 몰려가서 새초단을 날라다 성문앞에 잠간사이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았다.

리정암은 한손으로는 활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화살을 한아름 쥐고서 그 새초단우에 올라가 앉았다. 그리고는 올려다보고있는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자, 이젠 너희들 가고싶은데로 가라. 하지만 한사람만은 남아서 왜적이 성벽으로 오르거들랑 이 새초더미에 불을 질러달라. 나는 싸우다 죽을지언정 성을 버릴수 없거니와 이 몸을 불에 태울지언정 왜적들이 우리 땅을 유린하는것을 볼수 없다.》

이 말을 듣고있던 군사들은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왜적들이 다가오고있는데 왜 그러구들 있느냐? 한사람만 남았다 불을 지르고 가란 말이다.》

이 말에 군사들은 모두 땅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저희들이 성을 버리고 떠나자고 한것은 왜적이 두렵거나 목숨이 아까와서가 아닙니다. 싸움을 지휘할 장수가 없기때문이였으니 우리도 함께 싸우게 해주기를 바라나이다.》

이리하여 흩어져가려던 모든 군사들이 결사적으로 싸울것을 다짐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린근의 백성들도 창과 칼을 들고 성안으로 모여들었다.

리정암은 모여든 군사와 의병을 거느리고 성을 수축하고 못을 파놓으면서 싸움준비를 서둘렀다.

드디여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가 수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연안성을 공격해왔다.

그때까지도 연안성은 적의 공격을 막을만 한 준비가 채 되여있지 못하였다. 성도 완전히 수리되지 못하였고 무기라고는 총통(구식총) 몇자루와 화약 몇십근, 장편(긴 회초리) 몇십개가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성안의 군사와 의병들은 리정암의 지휘에 따라 결사적으로 싸웠다. 왜적들이 개미떼처럼 성벽으로 기여오르면 집중사격을 퍼붓고 끓는 물을 들부었다. 그러자 적들은 뜨거운 물을 막아보려고 풀단을 쓰고 기여올랐다. 성안에서는 또 불뭉치를 던졌다. 적들은 이번에는 불뭉치를 막아보자고 널판으로 상자를 만들어쓰고 접어들었다. 성안에서는 또다시 돌을 내리던져 그것을 깨버리였다.

성방위자들의 투쟁으로 적들은 드디여 시체만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도망치고말았다.

승리를 거둔 리정암이 조정에 보낸 승첩통보가 사람들의 경탄을 또한 자아냈다. 그에 의하면 아무날에 얼마만 한 왜적들이 공격해왔으나 성의 군민이 힘을 모아 왜적을 쳐물리쳤는데 아군에 얼마의 사상자가 있다는 정도였다. 그처럼 군사와 의병을 큰 싸움에로 불러일으키고 싸움에서 세운 공적도 많았으나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것이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리정암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였다.

《성을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싸움은 누구나 다할수도 있겠지만 공로가 있고도 자랑하지 않는것은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일이다. 오직 나라를 위하는 한가지 마음만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인것이다.》

*　*　*

유모아

말을 적게 하는 시기

《당신의 부인은 언제 말을 적게 하오?》

《2월달에.》

《무엇때문에?》

《2월이 28일밖에 없으니 말이요.》

*　*　*



기대와 관심-전국조선옷전시회

《다른 나라들에도 민족의상은 있지만 조선치마저고리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민족옷은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4월 평양을 방문하였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사무장 권헌이 한 말이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발전시켜나가는 조국에는 어디 가나 조선옷점이 있으며 누구나 조선옷을 즐겨입는다.

민족의상에 대한 인기는 전국조선옷전시회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주체92(2003)년부터 조국에서는 해마다 가을이면 전국조선옷전시회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이 전시회에는 각 도 조선옷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국의 피복부문 기술자, 기능공들과 애호가들이 인민들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만든 민족의상으로서의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들을 출품하고있다.

이와 함께 조선옷의 도안창작과 설계, 가공에 대한 강습, 피복기술도서보급과 옷본보기출연 등 다양한 보급사업들이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녀성들은 물론 남성들의 관심사로도 되고있다.

매해 조선옷전시회들이 다 자기의 주제를 가지고 특색을 살리였지만 지난해에 진행된 제13차 전국조선옷전시회는 남자들의 민족옷인 조선바지저고리와 전통적인 형식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부분요소들을 완성시킨 조끼, 배자, 당의, 마고자, 두루마기와 같은 여러가지 민족옷이 많이 출품된것으로 하여 더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평양에 있는 종로조선옷점에서는 녀성들의 례복으로 알려진 당의를 연미색의 저고리와 연분홍색의 치마로 만들었으며 신리조선옷점에서는 연록색의 두루마기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조선옷들을 연하고 은근한 색갈로 조화를 맞추어 출품하였다.

강원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도들의 조선옷점들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조선옷들을 섬세하고 우아한 무늬들로 조선옷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면서도 마가을날에 입는 마고자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잘 형상하여 전시회에 내놓았다.

경공업성에서는 민족의 향취가 짙은 갖신류를 출품하여 우아하고 소박한 조선옷들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구어주었다.

옷본보기출연에 참가하였던 김수양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제가 입고 출연하였던 흰색바탕에 연분홍색의 모란꽃을 우리의 조선화기법으로 형상한 결혼식옷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족의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아함을 한껏 더해주는것 같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았던 락랑구역에 살고있는 계설경은 《결혼식옷을 한벌 마련하려고 이곳을 찾았댔는데 제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줄 민족의상과 함께 갖신도 다같이 골랐습니다. 무늬와 색갈이 다종다양하니 볼수록 다 입고싶고 신고싶은 욕심이 절로 생기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다음번 조선옷전시회를 기다리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3)

- 대동문과 련광정 -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은 이번에는 대동문으로 향하였습니다.

중세조선의 대표적인 성문의 하나인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는 대동문은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동문입니다.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워졌는데 지금의것은 1635년에 다시 지은것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만적폭격에 의하여 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후에 인차 원상복구되였습니다.

평양의 6대문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성문인 대동문은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우에 세운 웅장한 문루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9m이고 축대의 규모는 길이 26. 3m, 너비 14. 25m, 높이 6. 5m입니다. 축대의 복판에는 무지개문길을 냈는데 평면상 네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점차 넓혀서 힘을 잘 받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축대우에 세운 2층문루는 정면 3간(15. 91m), 측면 3간(10. 34m)으로 된 합각집으로서 축대의 규모와 잘 어울리며 장중하고도 위엄이 있어 보입니다.

대동문



문루에는 박위(?-1398년, 고려말-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관)가 쓴 《읍호루》(문루에서 손을 드리워 대동강의 맑은 물을 퍼올릴수 있다는 뜻)라는 현판과 양사언이 쓴 《대동문》이라는 현판이 걸려있습니다.

대동문은 고려의 건축술을 이어 발전시킨 조선봉건왕조시기 전기건축의 형식과 구조상특징을 가진것으로서 장엄함과 아름다움, 경쾌성을 동시에 갖추고있습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성문건축의 대표작인 대동문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들의 투쟁이야기도 깃들어있습니다.

대동문옆에는 평양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평양성사람들에게 평시에는 시간을 알려주고 외적이 침입할 때에는 경보신호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조한 종입니다. 현재의 종은 1726년에 주조한것입니다. 높이 3. 1m, 아구리직경이 1. 6m, 무게가 12t 914kg인 이 종은 청동을 녹여 만들었습니다. 조선종의 특징과 당시 주조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종걸면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등 아름다운 무늬와 종의 래력을 보여주는 글들이 부각되여있습니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던 큰 종의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 또한 장중하여 예로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습니다.

대동문과 평양종을 돌아본 우리는 그 가까이에 자리잡고있는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불리우며 평양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온 련광정으로 걸음을 옮기였습니다.

고구려시기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우고 그후에 여러차례 고쳐지은 련광정이 오늘 서있는 자리는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동쪽장대터입니다. 련광정은 처음에 그 이름을 산수정이라고 하였는데 그후 보수도 하고 1670년에 다시 세우기도 하면서 그 이름을 련광정이라고 고쳐불렀습니다.

련광정은 경치가 좋아 옛날부터 《제일루대》, 《만화루》 등으로도 불리워왔습니다.

지금 련광정에는 《천하제일강산》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고 대동강으로 면한 남쪽채 기둥에는 고려시기의 시인 김황원이 대동강기슭의 부벽루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지은 《긴 성벽기슭으로는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넓은 벌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 있네》라는 시구가 씌여져있는 글씨판이 걸려있습니다.

련광정은 독특한 평면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련광정은 ㄱ자형으로 두개의 다락건물을 조금 빗겨 맞물려세운것처럼 되여있습니다. 련광정은 대동강기슭에 쑥 내민 덕바위와 그곁에 있는 절벽우에 바싹 내밀어세워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하였습니다. 련광정의 밑부분은 땅을 파서 돌을 깔고 그우에 주추돌을 놓은 다음 지면이 좀 높은 대동강쪽 바위우에는 큰 나무기둥을 받치고 서쪽의 낮은 곳에는 높이 약 1. 4m, 너비 0. 56m의 네모돌기둥을 받쳐 수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우에 다락을 세웠습니다.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련광정에는 김응서와 계월향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을 쳐물리친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이야기도 깃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대동문과 련광정은 나라의 국보로 잘 보존되고있으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유선화



평양종

련광정



야화

신묘한 금강약수

옛날 금강산마을에 백운학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속탈이 있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였다. 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인데다 어쩌다 입맛이 동하여 음식을 조금만 더 먹어도 먹은것이 내려가지 않고 가슴까지 치밀어 그 아픔에 정신까지 잃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가 낮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늙은이가 나타나 자기는 금강산신선이라며 만폭동 어느 높은 벼랑밑에 약수가 있으니 그 물을 먹으면 속병이 깨끗이 나을것이라고 하는것이였다.

병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운학인지라 꿈에 본 신선의 말이 머리속에서 그냥 맴돌고 신선의 말대로 하면 병이 꼭 나을것만 같았다.

그는 다음날로 무작정 약수를 찾아 만폭동쪽으로 길을 떠났다.

그러나 금강산 1만2천봉우리를 다 돌았으나 약수를 찾는다는것이 헐한 일이 아니였다. 꿈속에서 본 신선의 말대로 한다면 약수가 있을것 같았으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약수는 보이지 않았다.

약수를 찾지 못한채 맥없이 만폭동으로 되돌아 내려오던 백운학은 너무도 힘이 진하여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그런데 이때 그의 눈에 한쪽 날개죽지를 상한 백학 한마리가 가까스로 백운대를 향해 날아가는것이 보이였다.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느라니 얼마쯤 지나 그 백학이 상했던 날개죽지를 휘저으며 백운대를 한바퀴 돌더니 어디론가 날아가는것이였다.

명절날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널뛰기



설명절을 가까이하는 어느날, 저는 아들과 딸의 손목을 잡고 평양민속공원을 찾았습니다.

유구한 5 000년의 력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이 창조한 수많은 유산들가운데는 건축물들과 민족음식, 민족의상과 함께 민속놀이도 있는데 저의 자식들이 조선민속박물관에 전시된 널뛰기그림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림에는 명절날 명절옷을 입은 녀성들이 널뛰기를 하며 담장밖을 내다보는 모습이 방불히 형상되여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자마자 눈앞에 교예배우들의 널뛰기장면이 련상되였는지 8살난 딸애가 눈을 반짝이며 《야, 널뛰기하는 배우들이예요. 맞지요, 어머니?》라고 저에게 묻는것이였습니다.

철부지자식들의 좁은 소견에는 널뛰기하는 녀성들은 다 배우처럼 여겨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우리 인민들속에서 예로부터 널리 즐겨온 민속놀이의 하나인 널뛰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널뛰기는 중심에 고임목을 놓은 긴 널판의 량끝에 각각 한명씩 올라서서 공중으로 오르내리기를 엇바꾸어 진행하는 조선민족고유의 민속놀이로서 먼 옛날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보급되여왔습니다.

이 놀이는 대체로 녀자들이 한데 모여서 즐기군 하였는데 설명절과 정월대보름날에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긴 널판의 량끝에 선 두 녀성이 겨끔내기로 뛰여오르고 내리는데 그것은 당대 시대의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어주었습니다.

널뛰기는 다리힘과 페활량을 키워주어 몸단련에 좋을뿐아니라 전신운동으로서 몸매를 곱게 해주었기때문에 나이가 다 찬 딸을 둔 집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처녀시절을 추억하면서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그해에는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처녀시절에 널뛰기를 많이 해야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날 봉건의 울타리속을 넘고싶은 녀성들의 마음을 담고있던 널뛰기가 오늘은 널리 대중화되였으며 세계 교예무대에서도 인기종목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럼 대중화되고있는 널뛰기경기에 대해서 봅시다.

널뛰기경기는 곧추뛰기, 엇바꾸어뛰기, 재주뛰기 등의 형태로 진행합니다.

곧추뛰기는 널판의 튐성과 조약력을 리용하여 높이 그리고 아름답고 정확하게 뛰여오르내리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며 엇바꾸어뛰기는 4명이 한조가 되여 주어진 회수로 엇바꾸어가면서 높이뛰기를 겨루는 형식으로 하고 재주뛰기는 부채, 반고, 소고, 댕기, 륜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할수도 있으며 맨몸으로 다양한 동작을 아름답게 수행하기도 합니다.

경기는 개인전, 개인단체전, 단체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순위는 제정된 시간안에 어느 조가 또는 누가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뛰는가에 따라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릅니다.

널뛰기경기참가자들은 그 차림새도 민족적전통을 살려 조선식으로 하고있습니다. 선수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가든히 차려입고 허리띠를 매고 그에 알맞는 신발을 신습니다.

널뛰기에 쓰이는 널은 길이가 4. 5~5m, 너비가 35~40㎝, 가운데부분의 두께는 7~8㎝, 량끝부분의 두께는 3~3. 5㎝되게 만드는데 대체로 튐성이 좋은 나무를 씁니다. 이때 고임목의 높이는 30~35㎝정도로 합니다.

교예극 《춘향전》에서 형상한 널뛰기의 한 장면



저의 말에 딸애는 《어머니도 널뛰기를 해보았나요?》라고 묻기까지 하였답니다.

동포여러분도 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 아름다운 미풍량속이 깃들어있는 민속놀이들을 즐기면서 설명절과 정월대보름날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 옥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였다. 그래서 그는 힘을 내여 발길을 되돌려 다시 백운대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찾고찾던 파아란 샘물이 신기하게도 졸졸 흐르고있었다.

《금강산신선이여, 만약 이 샘물이 신통한 약수라면 저의 속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운학은 손으로 샘물을 떠서 한모금 마시였다. 그러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방금전까지 쑤시던 속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가슴이 다 후련해지는것이였다.

샘물을 계속 몇모금 더 마셨더니 아픔이 멎고 원기가 회복되여 발걸음까지 가벼워지는것이였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그다음부터는 속병이라는 말자체를 모르고 건강하여 일도 마음껏 하게 되였다.

이때로부터 이 약수는 금강약수로 불리우면서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 * *

동 명 왕

동명왕은 고구려봉건국가의 시조이며 건국자이다. 그의 이름은 주몽 또는 추모, 도모, 중모라고도 하였으며 호는 동명성왕으로 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해모수이고 어머니는 류하이다. 류하는 구려(졸본부여) 웃지역의 유력한 정치세력자인 하백의 딸이였다.

해모수는 류하가 있던 부근의 한 귀족문벌출신의 인물이였다. 당시 해모수와의 관계로 하여 부여왕실에 가서 나그네살이를 하고있던 류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주몽이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보통사람과 달랐다. 그는 커가면서 제 손으로 활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하여 사람들을 놀래웠다. 그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부르게 된것도 당시 부여, 구려지역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부른데서부터 기인된것이다.

그는 뛰여난 재능과 함께 높은 무술을 소유하고있었다. 그때 그는 부여왕의 7명의 아들들과 놀았는데 그들은 모두 주몽의 무술을 따르지 못하였다. 하루는 그 왕자들이 부하 40여명을 데리고 주몽과 함께 사냥을 하였는데 주몽이 혼자서 수십마리의 짐승을 잡는 사이에 그들은 겨우 사슴 한마리밖에 잡지 못하였다.

밸이 꼬인 왕자들은 주몽을 시기하여 그를 큰 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다음 그가 잡은 짐승들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났다. 이에 격분한 주몽은 그 큰 나무를 혼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문무를 갖춘 주몽에 대한 위협을 느낀 부여왕과 아들들은 그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였다.

이 음모를 간파한 주몽의 어머니는 《너의 재간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여기에 머물러 욕을 당하기보다는 멀리 가서 큰일을 하는것이 낫다.》고 하면서 그가 부여를 떠날것을 권고하였다.

주몽은 어머니의 권고대로 뜻이 같은 벗들과 함께 부여를 떠나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쳐물리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는 구려에 이르러 이곳 봉건세력과 함께 B. C. 277년에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고구려》라고 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였다고 한다. 그후 그는 봉건적인 국가사회체제를 갖추면서 주변의 여러 소국을 통합하여 령토를 넓히고 경제, 문화를 발전시켜나갔다.

이처럼 동명왕은 고구려국가를 세운 시조왕으로서 나라의 령토를 확보하고 고구려봉건국가의 강화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추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 * *

평화협정체결의 정당성

지금 세계의 초점은 이미 낡은 정전협정을 페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안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데 모아지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그릇된 주장을 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미국은 공화국의 제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뚱딴지같은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그것이 선차적인 문제라고 억지를 부리였으며 평화협정은 조미사이가 아닌 북남사이에 체결되여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하고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이 주장이 허황한것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공화국의 제안은 현시기 조선반도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인 발기로 되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최대의 열점지대로 공인되여있다. 지금도 군사분계선과 그것을 따라 미국의 교활한 반통일음모, 극악한 《두개 조선》조작책동과 그에 적극 추종한 남조선군부독재자들이 구축한 콩크리트장벽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있으며 미국은 수많은 핵무기를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비해놓고 항상 공화국을 겨냥하고있다. 그것은 어떤 우발적인 사건도 위험천만한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할수 있다.

이 위험을 현재의 정전협정으로는 저지시키거나 막을수 없다는것을 지난해 8월 원인모를 사건이 삽시에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번져졌던 당시의 정세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남조선에서 실제적인 주인노릇을 하고있는것도 미국이며 모든 무력에 대한 통수권도 미국이 틀어쥐고있기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제 군사분계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누구도 통제할수 없는 전면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화국이 지난 시기 유관측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비핵화론의, 핵문제와 평화보장문제를 동시에 론의해보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인한 군사적도발로 하여 그 모든것은 다 허사로 되였다.

지금 미국이 비핵화문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있는것은 그 전철을 또다시 밟음으로써 남조선을 영원히 틀어쥐고 더 나아가서는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문제의 선후차를 놓고 이러쿵저러쿵하는것도 하나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조미의 문제는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것이다. 서로의 대결상태에서 그 무엇을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실현될수 없는 빈 종이장에 불과한것으로 되고만다. 이로써 공화국이 찾게 된 결론이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것이다.

조미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에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되여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에서 그리고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면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으며 그것은 곧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현 사태는 공화국뿐아니라 주변나라들과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엄중한 위협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북남관계, 조미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있으며 조미평화협정체결제안을 적극 지지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은 공화국과 미국이 마주앉아 원칙적인 합의를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정전협정에 서명한것은 공화국과 미국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조미당사자들끼리 토의하여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조선에서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대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하는것은 공화국의 제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보여줄것이다.

만일 미국이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역행하는 길로 나간다면 공화국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을 위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보다 강화하는것으로 대응할것이며 미국은 마침내는 그 강력한 혁명적무장력과 마주치게 될것이다.

미국은 그 결과가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경수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구석기시대전기유적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이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에서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구석기시대전기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유구성 특히 조선민족의 기원문제와 직접 잇닿아있는 매우 심중한 문제이다.

연구집단은 주체100(2011)년 5월부터 주체104(2015)년 6월까지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유적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여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에 있는 해발 40m정도의 야산중턱 동굴자리에서 유적을 발견하였으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14점의 석기와 8점의 골기(뼈로 만든 도구), 5 000여점의 짐승뼈화석, 1 000여개의 포분화석(포자와 화분화석)을 찾아냈다.



동암동유적은 1문화층과 2문화층으로 갈라져있다. 1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 찍개, 망치와 함께 13종의 짐승뼈화석이, 2문화층에서는 주먹도끼, 찍개, 자르개, 망치, 골기와 함께 12종의 짐승뼈화석이 발견되였다.

또한 동암동유적의 1, 2문화층에서는 많은 포분화석들도 발견되였다.

여러가지 과학적인 년대측정법으로 측정한데 의하면 동암동유적의 1문화층의 년대는 대략 88만년전, 2문화층의 년대는 대략 72만년전으로 확정되였다.

이미 조국에서 검은모루유적이 발굴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동암동유적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대동강류역에서 구석기시대전기의 이른 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련면히 살아왔으며 우리 나라가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이 다시금 과학적으로 확증되게 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구석기시대문화연구를 보다 심화시킬수 있는 매우 가치있는 자료들이 풍부히 마련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쌍안경을 든 오바마의 속심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자국령토방위를 위해 군복까지 떨쳐입고 전장에 나섰는가. 아니다. 수천수만리 대양건너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군사분계선상에 게바라나와 쌍안경을 들고 공화국북반부를 노려보고있다.

무엇때문에, 무엇을 위해.

대통령의 수표하에 방대한 미군무력이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려놓고있는 각종 침략전쟁연습, 핵전쟁연습들이 오바마의 속심을 적라라하게 발가보이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사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하수인을 앞세운 미국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허위나발을 불어대며 《방어》라는 미명하에 남조선에서 벌려놓고있는 각종 전쟁연습들은 명실공히 침략전쟁연습이며 적절한 기회에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깔고앉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오바마가 현지에서 그것을 확인하고있다.

본사기자













지울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1)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해당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민족성,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어 민족성의 상징으로, 민족문화와 정신도덕의 결정체로 되며 그것은 그를 창조하고 계승한 민족의 후손들에 의하여 대대손손 계승되여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다.

우리는 이번호부터 백년숙적 일본침략자들의 조선민족문화재파괴략탈범죄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까밝혀보기로 한다.

- 조선문화재략탈전쟁 《임진왜란》 -

인류력사는 수만여차의 각종 전쟁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사무라이들이 일으켰던 《임진왜란》처럼 《자기전쟁》, 《활자전쟁》, 《랍치전쟁》으로 불리우는 전대미문의 범죄적인 전쟁은 아마 드물것이다.

1592년(임진년) 4월 13일 불의에 조선남해의 관문인 부산을 공격하는것으로 전쟁을 개시한 일본침략자들은 전쟁전기간 전국각지에서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문화재들을 파괴략탈하고 소각하였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사무라이들은 침략군에 전투병력과는 별도로 6개의 부(도서, 공예, 금속, 보물, 포로, 가축)를 두었는데 이것들은 순수 조선문화재를 략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략탈부서들이였다. 이처럼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문화재에 대한 파괴와 략탈을 기본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감행하였다.

력사에 새겨진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사무라이들의 조선문화재에 대한 범죄행위는 대량적인 파괴와 략탈로 특징지어진다.

일본침략자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든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파괴소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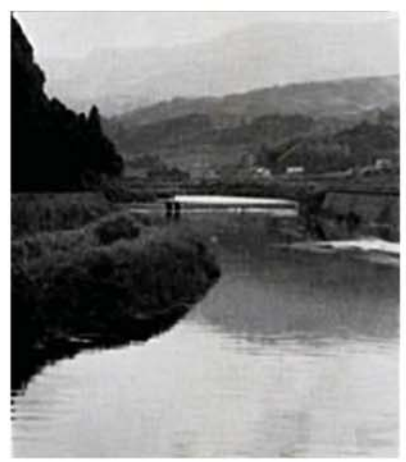
침략자들은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건축문화유산들과 서적을 비롯한 문화재들을 파괴소각하였다.

서울을 강점하였던 침략자들은 조선봉건왕조의 정궁인 경복궁과 별궁인 창덕궁을 불태워버렸으며 나중에는 사찰들과 왕실의 사당인 종묘까지도 파괴소각하였다.

평양에 기어들었던 침략군은 고구려시기에 세운 영명사(393년) 부벽루와 고려시기의 숭인전을 불태웠으며 대동문과 련광정, 청화관 등 수많은 건축물들을 파괴하였다. 또한 경주의 불국사, 평안남도의 안국사 대웅전,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김제군의 금산사 미륵전 등 수많은 불교사원들도 대대적으로 파괴소각하였다.

고분들에 대한 도굴, 파괴략탈행위는 극도에 달하여 그에 대하여 하나하나 꼽기가 힘들 지경이다. 오죽했으면 당시 도체찰사였던 류성룡이 《징비록》(제16권)에서 《심지어 나라의 릉묘까지 남아있지 못하였다.》고 한탄하였겠는

랍치해간 도자공들이 있던 아리다강류역과 가마터흔적







랍치되였던 조선인기술자무덤들의 일부

가. 그리고 당시 홍문관과 춘추관 등에 보관되여있던 수많은 서적들이 불타버렸으며 측우기를 비롯한 관측설비들과 악기와 악제까지 파괴소각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임진전쟁시기 문화재들을 파괴소각하였을뿐아니라 많은 문화재들을 략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일본사무라이들은 각종 서적과 회화작품, 금속활자와 공예품, 악기와 도자기 등의 재보들을 강탈하였다. 특히 일본침략자들은 《조선본》이라고 하던 도서들을 가장 많이 략탈해갔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동활자(1434년에 주조된 갑인활자) 인쇄본인 《고려사절요》와 《양휘산법》, 《산학계몽》, 《의방류취》 등은 뒤떨어져있던 일본의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고려사절요》(고려 34대 왕조의 475년 력사를 서술한 책)와 같은 서적은 일본 나고야의 호사문고에 저들의 이른바 《국보》로 뻐젓이 보관되여있다.

침략자들은 또한 《계미자》(1403년에 주조된 금속활자로서 10만자), 《경자자》(1420년 주조), 《갑인자》(1434년 주조, 20만자)와 같은 금속활자들과 《보살삼존십왕도》, 《당회석존》, 《원각 만다라》 등을 비롯한 많은 회화작품들까지 훔쳐갔다. 이밖에도 수많은 고려자기들과 조선봉건왕조자기들, 각종 종류의 종들과 불탑, 자개박이칠기류 등 일본사무라이들이 략탈해간 문화재는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보다 더 간악한 략탈만행은 기술자들에 대한 랍치행위였다. 전쟁기간 일본사무라이들이 《전리품》중에서 가장 가치있는것으로 여긴것은 사람 즉 기술자였다. 여기에는 학자와 중, 의사와 화가, 음악가, 건축가와 도자공, 인쇄기술자, 방직기술자 등 학문과 기술분야의 많은 인재들이 속하였으며 이런 기술자들이 무지한 섬나라에 수많이 끌려갔고 이들에 의해 일본의 성리학과 불교, 문학, 방직업, 도자공예발전이 이룩되였다.

이를 두고 일본의 한 학자도 《조선으로부터 최대의 문화략탈은 고려자기이며 이 기술을 소유한 도공집단의 일본에로의 련행이였다.》라고 하였다.

한차례의 전쟁에서 이처럼 많은 문화재와 사람들을 략탈해간 전쟁은 동서고금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7년간의 임진조국전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본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과 과거에 대한 성근한 반성도 할줄 모르는 일본인의 저능아적인 성격과 품성을 알수 있다.

본사기자 윤영일



고 화

《빨래터》

아낙네들이 고된 들일, 집일의 틈을 타서 시내가에 모여 빨래를 하고있다. 맑은 시내물이 소리치며 흐르는데 두 녀인은 그에 화답하듯 방치질소리높이 빨래를 다그치고있으며 한 녀인은 시원히 물에 들어서서 흐르는 물에 빨래를 헹구고있다. 그들의 몸에는 활발하고 생신한 기운이 넘치고있으며 어린이를 돌보면서 머리를 땋고있는 녀인의 모습도 퍽그나 자연스럽다. 봉건적인 2중3중의 천대와 질곡속에서 늘 기를 못 펴고 살다가 짧은 시간이나마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마음가벼이 지내는 아낙네들의 생활과 밝은 표정을 간결하고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화가는 또한 바위뒤에 몸을 숨기고 허벅다리까지 드러낸 아낙네들을 훔쳐보는 갓쓴 사나이를 그려 겉으로는 《남녀유별》을 뇌이면서 《륜리도덕》을 설교하지만 속에는 엉큼하고 흉측한것이 들어차있는 량반들의 음탕하고 내흉스러운 본성을 폭로하였다.

이 그림은 김홍도(1745년-?)가 그리였다. 그의 자는 사능, 호는 단원, 단구, 서호, 고면거사, 취화사, 첩취옹이다. 도화서 화원, 연풍현감도 지낸 김홍도는 18~19세기를 대표하는 사실주의경향의 진보적인 화가이다.

*　　*　　*



환희의 축포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밤하늘을 물들이며 천갈래만갈래로 터져 오르는 축포는 평양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해준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실현되는 조국에서 환희에 넘친 삶을 누리는 인민의 모습이 저 축포에 다 담겨진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582153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